

남구, 하계방역 권역 5곳 확대 내달 본격 운영

효천지구·대촌권 방역 세분화 5개 대행업체와 120일 구슬땀

광주 남구는 주민의 여름나기를 위해 올해부터 하계방역 권역을 5곳으로 확대, 다음 달부터 하계방역에 나선다. 남구 남구는 효천1·2지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된 점과 도농 복합지역인 대촌동의 환경을 고려해 해당 지역을 새롭게 재편, 신규 권역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인 방역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하계방역 권역을 재구성한 이유는 관내 17개동 전체 방역 면적과 비교해 4권

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권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관내 방역 면적은 60.96km²에 이른다. 1권역은 양림동과 사직동, 월산동, 백운1·2동까지 3.1km²이며, 2권역은 주월1·2동과 월산4·5동을 포함해 3.44km², 3권역은 방림1·2동 및 봉선1·2동으로 3.73km²로 집계됐다. 4권역은 효덕동과 진월동, 송암동, 대촌동까지 50.69km²에 달한다. 이는 전체 방역 면적 83%에 해당한다. 남구는 4권역에 편중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2권역 일부와 4권역을 전면 재

편, 올해부터 5개 권역으로 나눠 방역에 나선다. 1권역은 양림동과 사직동, 백운1·2동으로, 2권역은 주월2동과 월산동, 월산4·5동, 3권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4권역은 주월1동과 진월동, 효덕동으로 묶으며, 5권역은 송암동과 대촌동으로 편재했다. 하계방역 권역 확대로 방역에 투입하는 인력과 장비도 늘었다. 남구는 관내 5개 권역의 집중 방역을 위해 올해부터 업체 1곳을 추가 모집, 5개 방역 대행업체와 손잡고 오는 5월2일부터 120일간 빈틈없는 방역 활동에 나선 방침이다.

방역 인원은 권역별 4명씩 총 20명이며 현장에는 차량용 탑재형 동력 분무기 5대와 수레용 연막기 12대, 수동식 분무기 18대, 휴대용 분무기 13대, 전동식 분무기 11대를 투입한다. 남구 관계자는 “방역 면적 재조정으로 권역별 면적이 줄어든 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꼼꼼한 방역이 이뤄질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과 함께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방역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방역기동대 2개 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신창동 유적지 활성화 토론회 광산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는 지난 18일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 ‘광주 신창동 유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운영일 광산구의회원이 좌장을 맡았다. 신창동 유적은 총면적 26만715m²규모로 마한의 생활상이 담긴 대규모 농경복합 유적이다. 1992년 국가사적 제275호로 지정됐다.

발굴조사는 1963년 첫 발굴 이후 30% 진행됐으나 2020년 이후 중단되면서 유적 가치를 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중환 전 국립나주박물관장은 ‘신창동 유적이 보유한 다양한 가치의 확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신창동 유적과 지역사회의 연관성을, 광정수 신창동 주민자치회장은 신창동 유적 발굴과 변화, 박옥연 광산구 문화유산활용팀장은 신창동 유적의 확장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펼쳤다.

지난 2022년 12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신창동 유적을 마한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연구·조사와 발굴·복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남부서 신설도 강조했다.

김상철 기자

‘탄소중립’ 자원 순환의 날 행사 동구, 학운초교 학생 대상

광주 동구는 지난 18일 학운초등학교에서 재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의 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들에게 자원순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연 △재활용 가능 자원 물품 교환 △분리배출 자원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자원순환 가게 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동구는 학운초교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초등학교 11곳을 순회하며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맞춤형 재활용 교육과 분리배출 체험을 통해 환경친화적 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광주 동구는 학운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가졌다.

광주 동구 제공

임택 동구청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기후 위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성 기자**

4차산업 발전위원회 회의 북구, 발족·성장 지원

광주 북구는 4차산업 발전위원회 회의가 22일 오후 3시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4차산업 발전위원회는 북구가 지역 미래 먹거리 기술과 산업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육성, 실효성 높은 미래 전략산업을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이번 위원회 위원은 북구가 앞서 지난 2~15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ICT 융합 △인공지능 △드론 △광융합 △AR/VR 등 4차산업 관련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13명과 북구청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역할은 △4차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차산업 육성·지원 △4차산업 시책 개발 등 북구가 추진하는 4차산업 분야 정책 전반에 방향을 설정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수행한다. 북구 북구청장은 “4차산업 발전위원회를 기반 삼아 4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서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추진

배출사업장 등 최대 1000만원

광주 서구가 다량배출사업장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서구에 따르면 감량기는 음식물쓰레기의 약 80%를 감량하는 효과가 있어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자체 처리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이 필요 없어 위생적이다. 감량기를 통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산물은 퇴비나 토양개량제로 재활용하는 등 부가적인 효과 창출도 가능하다.

서구는 사업비 총 7000만원을 들여 업체당 감량기 구입비용의 50%(최대 1000만원)를 선착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감량기는 가열·건조, 발효, 발효건조, 퇴비·사료화, 부숙의 방식 등으로 작동되는 음식물 감량기 중 △전기용품 안전기준(KC마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체표준(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Q마크 인증 등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단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월31일까지 보탬e(www.losims.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방문(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을 통해 가능하다. 채봉길 서구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감량기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지금까지 총 36대의 감량기 설치를 지원했다. **강주비 기자**

광산구, 차상위 데이터로 주거급여 사각지대 발굴

광주 광산구는 차상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선정 기준이 유사한 차상위 세대의 데이터를 분석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광산구는 올해 연말까지 차상위장애인 1018명의 데이터를 전수 조사, 주거급여 미신청 세대에 복지 정보안내 홍보물을 보내 주거급여를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계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가구 제외)

2024년 기준 동위소득 및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동위소득	2,298,484	3,062,646	4,174,637	5,278,913	6,095,735
주거급여	1,898,824	2,747,652	3,683,835	4,718,358	5,476,587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별 가구원 동시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처: 주거급여 담당 부서(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문의: 주거급여 담당 부서(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읍·면사무소)

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산구는 현재 235억원이 편성돼 있다. 선정 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4인 기준 275만358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48%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선정해 지원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권리를 찾는 복지안정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내결에 스마트경로당’ 구축 시동 서구, 과기부 주최 사업 선정

광주 서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5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서구는 ‘ICT 기반 서구 내결에 스마트 경로당’을 제안해 5개구 중 유일하게 A 등급을 받아 국비 6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8억5800만원을 확보했다. 서구는 향후 관내 모든 경로당을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하나로 연결,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네트워크로 양질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로당 36개소에 화상 플랫폼 구축을 통한 양방향 소통 서비스와 스마트 테이블 보급으로 인지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경로당 240개소에 비상안심벨을 설치한다. 또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 경로당 내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인 경로당을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높은 수준의 노인복지를 실현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더 나아가 경로당을 지역 거점형 복지센터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